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가해 간 관계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선 영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가해 간 관계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윤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선 영

김선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가해 간 관계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선 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비행 가해와 부정적 생애경험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해 폭력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역경 경험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최근 청소년이 가해자로 지목된 심각한 폭력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중적 반감과 달리, 강한 처벌은 재비행 예방에 실효성을 갖지 않으며 재사회화 기회를 차단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문제 행동을 촉발한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대, 방임, 가정 내 역기능과 같은 부정적 생애 경험은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1)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유사한 패턴으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유형화하고, 2) 분류된 유형 간의 비교를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년)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당시 청소년들은 모두 중학생이었으

며, 총 797명(4차=514명, 13차=283명)의 응답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애경험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유형 별 특징에 따라 집단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폭력비행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80.86%가 최소 하나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 있으며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을 경험한 참여자는 과반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부정적 생애경험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관용적인 음주 태도와 위험 음주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 드러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역기능적 가정환경', '가족 해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특징적인 경험 양상을 나타내었다.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경우 학대와 방임을 비롯해 가정 내 역경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고루 경험한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배우자 폭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폭력 경험의 비율은 높지만, 그 외 사건에 대한 경험률은 낮은 집단이다. 가족 해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해당 집단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가구원의 우울증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과 비교하여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폭력비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두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그리고 누적된 위험 가설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다.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보다 학대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을 학습하고 학대 경험으로 인해 통제력 발달이 저해되어 폭력비행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보다 많은 수의 부정적 생애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집단에서는 부정적 생애 경험의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써 폭력비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가족 해체 유형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폭력비행 발생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분석 결과는 누적된 위험 가설을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각 유형은 이질적인 패턴으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하였으나, 누적된 역경 경험의 종류가 많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두 유형 모두 역경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어 폭력 발생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 해체 유형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세 유형 중 부정적 생애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다. 반면에, 가족 해체 유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경들을 경험한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해,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ACEs에 포함된 하위 경험들이 국내 청소년들에게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에게 집중된 국내 ACEs 연구의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국내 자료를 사용한 다양한 ACEs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부정적 생애경험의 누적점수 대신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누적점수 방식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누적점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청소년의 역경 경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분류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폭력비행 가능성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청소

년 집단을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한 함의를 종합하여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담당을 보완하기 위한 부처 간 협동, 가해 청소년의 환경 요인에 대한 개입, 청소년의 경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술된 함의와는 별개로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연구에서 살펴본 역경 경험들이 제한적이라는 점, 부정적 생애 경험의 유형이 폭력비행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 중학생 시기 이외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 집단에는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에 살펴본 역경 경험 외에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경 경험들을 측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청소년, 폭력비행, 부정적 생애경험, 잠재계층분석
학 번 : 2020-2656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 문제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제 1 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 8

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정의 ····· 8

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 ····· 10

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 연구의 필요성 ····· 13

제 2 절 청소년의 폭력비행 ····· 18

1. 폭력비행의 정의 ····· 18

2. 폭력비행의 발생 원인 ····· 19

(1) 개인 요인 ····· 19

(2) 가정 요인 ····· 20

(3) 또래 요인 ····· 22

3. 청소년기의 폭력비행 ····· 23

제 3 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 ····· 24

제 3 장 연구모형 ····· 26

제 1 절 연구모형 ····· 26

제 4 장 연구 방법 ····· 27

제 1 절 분석자료 ····· 27

제 2 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 30

1. 종속변수: 청소년의 폭력비행 ····· 30
2. 독립변수: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 31
3. 통제변수 ····· 35
제 3 절 분석 방법 ····· 39

제 5 장 분석 결과 ····· 41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41
제 2 절 잠재계층분석 결과 ····· 45
1. 부정적 생애경험 잠재 계층 ····· 45
2. 잠재 계층별 특성 ····· 47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51

제 6 장 결론 ····· 53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53
제 2 절 연구의 함의 ····· 60
1. 이론적 함의 ····· 60
2.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 63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66

참고문헌 ····· 69
Abstract ····· 91

표 목 차

<표 1> 주요 변수 정리 ····· 37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 42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 44
<표 4> 잠재계층분석 적합도 분석 결과 ····· 46
<표 5> 유형별 역경 경험 비율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 49
<표 6> 폭력비행 가해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5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26
[그림 2] 잠재 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 46
[그림 3]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응답 패턴 ····· 4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폭력비행은 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의도적인 위협이나 해악을 가하는 행위들로(David-Ferdon et al., 2014),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폭력비행은 청소년의 개인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력비행 피해 경험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생각, 신체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Arseneault et al., 2006; David-Ferdon et al., 2016; Haegerich & Dahlberg, 2011).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Haegerich & Dahlberg, 2011), 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을 방해해 성인기의 정신병리로 발현되기도 한다(Arseneault et al., 2006; Quinlan et al., 2020). 또한, 폭력비행 피해 경험은 학교 부적응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Arseneault et al., 2006; David-Ferdon et al., 2016; WHO, 2020)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가해를 저지른 청소년도 부정적 결과에 자유롭지 못하다. 가해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비공식적인 낙인과 편견, 학교로부터의 제재는 학교 부적응과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 학교 중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기광도, 2012; Staff & Kreager, 2008).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중퇴는 성인기의 구직 활동과 사회 활동에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해에 대한 처벌 기록이 남는 경우 청소년의 사회 진출은 더욱 크게 제약된다(기광도, 2012; Mercy et al., 2002).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건강한 발달과 교육적 성취가 기대되는 시기

로, 사회의 생산성에 일조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Belfield et al., 2012). 하지만, 폭력비행에 따른 신체 손상, 학업 성취도의 저하, 학교 중퇴 등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Belfield et al., 2012; David-Ferdon et al., 2016) 이는 사회적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lfield et al., 2012; Mercy et al., 2002; WHO, 2020). 폭력비행은 국가의 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기도 한다(Mercy et al., 2002). 먼저 폭력비행에 연루된 청소년의 성인기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경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비용이 발생한다(Belfield et al., 2012). 공공부조 외에도 직업 훈련, 상담, 재활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Belfield et al., 2012; David-Ferdon et al., 2014). 한편 비행이 폭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 사법 제도운영, 치안 유지, 교정을 위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진다(Belfield et al., 2012; David-Ferdon et al., 2014). 이처럼 폭력비행은 청소년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폭력비행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 경험에 더욱 취약한 동시에(Farrell & Sullivan, 2004; Mrug et al., 2008; Mrug & Windle, 2009; Paul & Cillessen, 2003), 가해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Blum et al., 2014; Lansford et al., 2014; Mrug & Windle, 2009). 중학생 시기 청소년은 신체, 관계, 환경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소수연 외, 2014; Mrug & Windle, 2009). 일련의 변화들은 유사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Blum et al., 2014; Dahl, 2004; Moilanen et al., 2010; Paul & Cillessen, 2003). 또한, 이 시기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데 반해 부모의 통제력과 영향력은 감소한다는 특징을 지닌다(Blum et al., 2014; Knecht et al., 2010). 이로 인해, 해당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기회에도 더욱 쉽게 노출된다(Dahlberg &

Potter, 2001; Mrug & Windel, 2009).

최근 언론을 통해 '일산 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학교폭력 미투(Me too)'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청소년 폭력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가해 청소년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은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으며,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적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이승현, 박성훈, 2017).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해결 방안으로 적절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징벌 자체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되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는 청소년의 재사회화 기회를 차단해 재비행을 유발하거나(박상식, 2013; 허경미, 2018) 청소년기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박상식, 2013; Eren & Mocan, 2021). 또한, 적절한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은 비행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경미, 2018; Gregory & Cornell, 2009).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타고난 기질, 성향 등의 개인 내적 특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DeLisi & Vaughn,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폭력비행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Farrington, 2004b).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이 경험한 과거의 부정적 사건들은 폭력비행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사법 체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과거 외상 사건(traumatic event)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Dierkhising et al., 2013; Moreland & Ressler, 2021; Wilson et al., 2013), 이들 청소년은 가정, 또래 관계, 학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사건들을 누적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Kurlychek & Johnson, 2019).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학대 및 방임(Chapple et al., 2005; Lansford et al., 2007), 가정폭력 목격(Moylan et al., 2010), 부모

의 약물 사용(WHO, 2020) 등 다양한 역경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하지만, 이처럼 단일한 역경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경우 해당 경험이 지닌 영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체로 역경 경험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또 다른 역경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애리, 정익중, 2018; Hughes et al., 2017), 누적된 위험 가설(cumulative risk hypothesis)에 따르면 복수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 요인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Appleyard et al., 2005; Sameroff, 2000). 이와 같은 부정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고안된 개념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이하 ACEs)'이다. ACEs란 만 18세 이전에 경험하는 일련의 역경 경험들을 칭하는 것으로, 성인기의 건강 상태, 교육 성취, 소득 수준, 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itti et al., 1998; Ports et al., 2021; Waite & Ryan, 2019). 또한, ACEs는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인 학업 중단, 무단결석, 약물 사용과도 관련이 있으며(Duke et al., 2010; Perez et al., 2018)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Duke et al.,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ACEs 경험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청소년이 폭력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졌으며, ACEs 경험의 개수에 비례해 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uke et al., 2010; Jackson et al., 2021).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들을 포괄하는 ACEs를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ACEs 점수와 폭력비행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폭력비행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ACEs 누적점수 방식이 갖는 한계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누적점수로 ACEs의 영향을 측정하는 경우, 응답자가 경험한 ACEs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으며 ACEs 하위 경험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중복되어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제시된 방법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사용한 ACEs 유형화이다. 잠재계층

분석에서는 ACEs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자들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ACEs 유형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잠재계층분석으로 ACEs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이 몇 차례 소개되었다(박애리, 2021; 박애리, 정익중, 2018; 이주연, 류정희, 2021).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모두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청소년의 ACEs 유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ACEs 유형화를 시도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다만, 해당 연구들은 약물 사용(Shin et al., 2018), 정신건강 문제(Lew & Xian, 2019; Turner et al., 2020), 범죄 전과를 가진 청소년들의 ACEs 경험 유형(Lee & Taxman, 2020; Walker et al., 2016; Wolff et al., 2018)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ACEs 유형 간 관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선 논의를 통해 국내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ACEs 유형과 폭력비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애경험 패턴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유형과 폭력비행 가해 경험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폭력비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입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가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간 관계가 확인된다면, 청소년이 폭력비행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역경 경험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학생 시기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유형과 폭력비행 간 관계 검증을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 문제 2]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은 총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절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을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를 통해 ACEs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ACEs 연구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ACEs가 성인기, 청소년기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문헌 검토를 통해 ACEs 유형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제 2 절에서는 청소년기 폭력비행에 대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폭력비행의 정의와 발생 원인을 개괄한 후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폭력비행이 갖는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소년의 폭력비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정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은 만 18세 미만에 경험한 학대와 가족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 경험들(traumatic events)을 의미한다(Felitti et al., 1998; Ports et al., 2021; Waite & Ryan, 2019). ACEs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98년 Felitti와 그의 동료들이 Kaiser Permanente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해당 연구는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건강 상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Felliti 외(1998)는 ACEs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를 포함한 학대 경험과 가구원의 약물 남용, 가구원의 정신질환,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폭력(mother treated violently), 가구원의 수감 경험을 포괄하는 가정 내 역기능(household dysfunction)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인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적 간 질환, 골격 골절, 간 질환과 같은 다양한 신체 질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ACEs는 음주, 흡연 등의 건강 위험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Felliti et al., 1998). 당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직업을 가진 상태였으며, 전체 인원 중 백인이 74.8%를 차지해(Felitti et al., 1998; 류정희 외, 2017)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미국 내 중산층에 속하였다(Karatekin & Hill, 2019).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최소 하나의 ACEs를 경험하였으며, 6.2%는 네 가지 이상의 ACEs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ACEs가 비교적 흔히 경험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는 미국 내 사망 원인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 질병들이 ACE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ACEs를 공공보건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시되었다(Dube, 2018; Ford et al., 2019).

ACEs가 처음 소개된 이후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ACEs에 대한 지식

은 꾸준히 확장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Felitti 외(1998)의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ACEs를 구성하거나, 방임, 부모의 이혼 혹은 부모와의 분리(separation)를 추가해 ACEs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만으로는 다양한 역경 경험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Cronholm et al., 2015; Finkelhor et al., 2015; Wade et al., 2014). Cronholm 외(2015)는 기존의 ACEs가 백인 중산층이 참여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집단의 경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ACE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종차별 경험, 위험한 지역 사회 내 거주 등에 대한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Cronholm et al., 2015; Wade et al., 2014). 또한, 또래 괴롭힘(bullying victimization), 가난, 지역 사회 내 폭력 목격, 부모의 자살시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다양하므로 ACEs에 포함되는 경험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Baglivio et al., 2017; Björkenstam et al., 2017; Finkelhor et al., 2015; Karatekin & Hill, 2019; Ports et al., 2020).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점들을 보완하여 기존의 ACEs에 다른 역경들을 추가해 살펴본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Finkelhor et al., 2015; Hughes & Tucker, 2018; Lee et al., 2017). 한편, 최근 연구자들은 성인기 발달 결과뿐만 아니라, ACEs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ACEs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결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은 성인기의 신체 건강,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감한 발달단계인 아동기에 경험하는 ACEs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으로 작용하는데, ACEs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신체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CEs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유전자와 뇌 구조의 변형을 유발하거나 면역 체계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Kelly-Irving et al., 2013; Shonkoff et al., 2012). 이러한 ACEs로 인한 생물학적 체계와 생리학적 체계의 변화는 심혈관 질환, 암, 천식, 당뇨와 같은 신체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Felitti et al., 1998; Kelly-Irving et al., 2013; Waite & Ryan, 2019). 또한, ACEs는 건강 위험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ACEs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개인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기제로써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Kelly-Irving et al., 2013; Wiss & Brewerton, 2020).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강 위험 행동은 신체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높여(Kelly-Irving et al., 2013; Shonkoff et al., 2012) ACEs가 신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한다.

ACEs에의 노출은 정신질환의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 신체 질병과 마찬가지로, ACEs가 생물학적, 생리학적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Merrick et al., 2017; Zarse et al., 2019). ACEs에의 노출은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에 영향을 미쳐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Zarse et al., 2019; McLaughlin et al., 2013).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가는 편도체, 해마 등 특정 뇌 영역의 활동에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성인기의 우울 또는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McLaughlin et al., 2013; Shonkoff et al., 2012). ACEs는 성인기에 경험하는 역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 체계의 결여 등을 통해 정신질

환을 유발하기도 한다(Jones et al., 2018; Maschi et al., 2013). ACEs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에도 역경을 경험하거나, 낮은 소득 수준과 열악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ones et al., 2018; Maschi et al., 2013).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의 누적은 성인기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Jones et al., 2018; Maschi et al., 2013). 실증 연구 결과들은 ACEs 점수가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Carr et al., 2013; Merians et al., 2019).

건강상의 문제를 비롯해 ACEs는 성인기의 교육 성취 수준, 빈곤 여부, 취업, 범죄 등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is et al., 2014; Metzler et al., 2017; Shonkoff et al., 2012; Slack et al., 2017). ACEs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필수적인 아동의 학습 능력, 기억력, 집행 기능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Shonkoff et al., 2012) 성인기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지를 제약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를 막을 수 있다(Metzler et al., 2017). 또한, ACEs는 성인기의 범죄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중범죄 및 만성 범죄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aglivio & Epps, 2016). 선행연구들은 정신병리의 발병, 정서조절의 어려움, 높은 충동성과 같은 ACEs로 인한 생물학적, 심리적 기제의 변화가 범죄로 이어지거나(Fox et al., 2015; Mair et al., 2012),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한 결과로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Fagan & Novak, 2018).

ACEs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agan & Novak, 2018). Flaherty 외(2013)에 따르면, 청소년이 경험한 ACEs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비롯해 두통, 복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화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ACEs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ACEs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Cluver et al., 2015). ACEs로 인한 내재화 문제는 자살 사고, 자살 계

획,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ACEs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살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luver et al., 2015). 또한, ACEs는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ACEs는 흡연, 음주, 성관계 등 청소년기 건강 위험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으며(Baglivio et al., 2017) 낮은 학업 성취도,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를 유발해 학교 중퇴 위험을 증가시켰다(Morrow & Villodas, 2018). ACEs는 청소년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범죄 경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일반 청소년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과거 ACEs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Baglivio et al., 2014). 그뿐만 아니라, ACE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재범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소년 사법 과정이 종결된 이후로부터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f et al., 2017).

최근 몇 년간 소개된 소수의 국내 연구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성인기의 발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손예진 외(2018)에 따르면 성인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인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과거에 ACEs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역경 경험과 성인기 외상적 사건 발생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하나와 정익중(2021)의 연구에서는 ACEs 경험이 있는 성인이 ACEs 경험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CEs와 성인기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준범과 손수민(2020)에 따르면 ACEs 누적점수가 높을수록 성인기에 자살시도를 경험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ACEs에 포함된 개별 경험들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애리와 정익중(2018)은 ACEs 유형에 따라 응답자를 분류하였는데, ACEs 경험이 낮은 집단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성인기 심리 사회적 적응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연과 류정희(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ACEs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CEs 경험이 높은 부모가 ACEs 경험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 학대

경험의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 연구의 필요성

ACEs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를 구성하는 하위 경험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ACEs를 기존에 연구되어 오던 역경 경험들에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ACEs 연구는 개별 경험에 관한 연구와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ACEs 연구가 갖는 차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ACEs는 다양한 부정적 생애경험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이 처한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 사건들이 중첩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최진영, 김기현, 2020; Barboza, 2018). 또한, 하나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노출은 다른 종류의 역경에 대한 노출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ng et al., 2004; Briggs et al., 2021). 이처럼 역경 경험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험들이 단독으로 고려되는 대신, 상호 간에 높은 관련성을 지닌 경험의 집합(set)으로 여겨져야 한다는(Dong et al., 2004; Dube et al., 2003)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정 역경 경험의 발생은 전반적인 가정의 상황이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Dong et al., 2004; Dube et al., 2003). 하지만, 개별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특정 경험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발생한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Wolff & Baglivio, 2017). 둘째로, ACEs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부정적 생애경험이 특정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복수의 역경 경험들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별 경험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는 왜곡된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애리, 정익중, 2018; Merians et al., 2019). 연구가 관심을 두는 특정 사건의 영향이 다른 사건의 영향과 독립적이지 않거나, 복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위험 가설(cumulative risk hypothesis)에 따르면, 특정 위험 요인의 존재나 부재가 갖는 영향과는 별개로 누적된 복수의 위험 요인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Appleyard et al., 2005; Sameroff, 2000). 또한, 복수의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rales & Guerra, 2006). 응답자가 경험한 ACEs 개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은(김준범, 손수민, 2020; Evans et al., 2013; Merians et al., 2019; Wolff et al., 2017) 중첩된 부정적 사건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ACEs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CEs 개념이 소개된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누적 점수(cumulative score) 방식을 사용해 ACEs의 영향을 측정하였다(Reidy et al., 2021). 누적점수 방식은 특정 역경 경험의 여부에 따라 ACEs를 이분법적으로 정의하고, 경험의 개수를 합산하여 ACEs를 측정한다. 누적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ACEs 경험의 개수가 누적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증가한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측정이 간편하고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선행연구가 이를 채택하였다(Evans et al., 2013). 하지만, 누적점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해당 방식에서는 ACEs에 포함된 하위 경험들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응답자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 누락된다. 예컨대, 누적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우울증을 앓는 가구원과의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의 ACEs 점수는 모두 1점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경험들은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는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만, 가구원의 우울을 목격한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et al., 1990). 또한, ACEs 누적점수는 총점이 어떠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점수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경험한 ACEs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다. 둘째로, 누적점수 방식에서는 ACEs 개수와 부정적 발달 결과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하지만, 해당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누적점수는 기본적으로 ACEs가 부정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산적(additive)이라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ACEs 점수가 특정 발달 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개별적인 부정적 경험들의 효과를 합산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누적점수 방식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1~3점에 해당하는 ACEs 점수와 0점이 갖는 영향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2점과 3점 간의 차이가 7점과 8점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효과를 갖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다(Evans et al., 2013). 이처럼 누적점수 방식은 편리성과 간결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과 같은 개인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식을 통해 ACEs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Barboza, 2018). 잠재 계층 분석을 통한 ACEs 유형화의 목적은 문항에 대한 개개인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자들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ACEs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구별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박애리, 정익중, 2018; Merians et al., 2019).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한 ACEs 유형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자가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임의로 집단을 구분할 때보다 응답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Barboza, 2018; Masyn, 2013). 둘째, 분류된 유형마다 어떠한 개별 경험들이 중복되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경험이 지닌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잠재집단에 속한 청소년도 연구에서 누락되지 않고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한 ACEs 유형화는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erians et al., 2019). 나아가 어떠한 ACEs 유형이 특정한 발달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함으로써(Barboza, 2018), 개입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ACEs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박애리, 2021; 박애리, 정익중, 2018; 이주연, 류정희, 2021). 성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박애리와 정익중(2018)의 연구에서는 ACEs 유형이 '낮은 ACEs',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박애리(2021)의 연구에서는 '높은 ACEs 그룹',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룹',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룹', '낮은 ACEs 그룹'으로 유형이 분류되었다. 부모가 경험한 ACEs를 살펴본 이주연과 류정희(2021)의 연구에서는 '높은 학대폭력 집단', '부정적 가족생활 경험 집단', '정서 학대 및 폭력 목격 집단', '또래 및 지역사회 폭력 집단', '낮은 부정적 경험 집단'의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잠재 계층 분석을 사용해 누적점수를 사용한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국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ACEs 연구가 부재했던 국내 학계에 ACEs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성인의 응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CEs의 과소·과대 보고 가능성을 한계점으로 지닌다. 연구 참여자가 성인인 경우, 이들은 오래전에 발생한 경험을 망각하거나 회상 편향(recall bias)을 나타낼 수 있다(Cicchetti & Toth, 2005; Fagan & Novak, 2018; Smith et al., 2008).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왜곡된 응답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Cicchetti & Toth, 2005; Fagan & Novak, 2018; Smith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학생 시기 청소년의 자료는 응답 시점과 부정적 경험이 발생한 시점 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대상의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을 일정 정도 보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애경험 현황을 파악하고 경험 유형을 분류함으로

써,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청소년의 폭력비행

1. 폭력비행의 정의

청소년의 폭력비행을 정의하기에 앞서,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이란 형법과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해(이장현 외, 2004)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 행동들을 의미한다(김준호 외, 2013). 청소년 비행의 유형은 연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됐으나, 비행 행동의 경중 또는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행의 경중이 기준이 될 경우, 절도, 강도, 살인, 폭력, 강간 등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 비행과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과 같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일탈 행동인 경 비행(지위 비행)으로 나누어진다(김준범 외, 2018; 황성현, 2010). 비행 행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는 비행 유형을 지위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지수 외, 2017; 임미령 외, 2015). 지위 비행은 앞서 언급한 경 비행과 동일한 행위들을 포함하며, 재산비행은 절도, 강도 사기, 손괴 등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박지수 외, 2017; 임미령 외, 2015). 폭력비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적·물질적·성적 공격 등 모든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박지수 외, 2017).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국내 연구들과 유사하게 비행(delinquency)의 하위 유형으로서 폭력비행(violent delinquency)을 정의하거나, 일련의 폭력 행위들을 청소년 폭력(youth violence)으로 일컫기도 한다. 청소년의 폭력은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force)이나 권력(power)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해악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된다(David-Ferdon et al., 2014). 청소년이 저지르는 폭력에는 신체적 싸움(physical fighting), 신체 폭행(physical assault), 성폭행, 또래 괴롭힘(bullying), 집단폭력을 비롯해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파괴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David-Ferdon et al.,

2014; WHO,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예시와 조작적 정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폭력비행을 '청소년이 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폭력비행의 발생 원인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David-Ferdon et al., 2014; Herrenkohl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폭력비행의 발생 원인을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개인 요인, 부모와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가정 요인, 그리고 또래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중 가정 요인의 상당수는 ACEs와 관련이 있으므로, 가정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ACEs의 하위 경험들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1) 개인 요인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개인적 특성에는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 지능, 성별 등이 존재한다(David-Ferdon et al., 2014; WHO, 2020). 충동성은 청소년기의 폭력비행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성격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Lipsey & Derzon, 1998). 충동성은 과잉행동, 자기 통제력, 자극추구(sensation-seeking), 위험 감수(risk-taking) 성향 등의 구성 개념을 포함한다(Farrington, 2004b).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잉행동은 비행 경험을 비롯해 성인기의 공식 범죄 기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ington, 2004b; Loeber et al., 2012). 또한, 높은 자기 통제력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Anderson et al., 2015)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높았다(Chan & Chui, 2017; David-Ferdon et al., 2014; Herrenkohl et al., 2000). 높은 자극 추구 성향과 위험 감수 성향은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vid-Ferdon et al., 2014; Farrington, 2004b; Herrenkohl et al., 2000). 충동성 외에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높았다(David-Ferdon et al., 2014; Flight & Forth, 2007; Herrenkohl et al., 2000). 지능 또한 폭력비행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의 낮은 지능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범죄를 예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Farrington, 1993a; Farrington, 2004b; Moffitt, 1993).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rrenkohl et al., 2000).

(2) 가정 요인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며,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 내 역동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애착,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 감독의 부재(David-Ferdon et al., 2014)는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였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게 된다(Simons et al., 2007). 이에 따라 청소년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일 위험이 증가한다(Simons et al., 2007).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소년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기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David-Ferdon et al., 2014; Bushman et al., 2016). ACEs에 포함된 개별 경험들 또한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Es의 하위 경험 중 학대는 폭력비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학대 피해 경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력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동기의 학대 피해 경험은 정상적인 인지 및 정서발달을 저해하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사회적 신호(social cues)를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폭력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Wolfe, 1999). 또한, 청소년은 부모의 학대 행동을 모방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수 있으

며(Akers & Jennings, 2019), 학대 피해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 전략(coping strategy)으로 폭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Agnew & White, 1992).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도 폭력비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Maughan & Moore, 2010; McGuigan et al., 2018; Ryan et al., 2013). 방임은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을 저해하며, 방임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 대상이 부재해 이후 아동은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한다(McGuigan et al., 2018). 아동기의 방임 경험은 청소년기의 비행을 비롯해 성인기의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Maughan & Moore, 2010). 또한, 폭력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비폭력(non-violent)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신체적 방임 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yan et al., 2013). 한편,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이혼 혹은 부모와의 분리(separation) 경험과 청소년의 폭력비행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해당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폭력비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Mack et al., 2007; Mok et al., 2018). 부모와의 분리는 관리·감독의 감소, 부정적인 양육 태도, 경제적 자원의 감소, 불안정한 애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Mack et al., 2007; Mok et al., 2018; Price & Kunz, 2003). 하지만, 부모의 이혼/분리 경험 이전부터 존재한 부부 간 갈등이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비행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Kelly, 2012), 해당 ACEs의 영향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의 알코올 의존은 부모와의 분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양육 태도(Marcal, 2021; Shafer et al., 2017), 관리·감독의 감소(Shorey et al., 2013)를 유발하거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Su et al., 2018)을 일으켜 청소년의 폭력비행 위험을 증가시킨다. 가구원 우울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은 애착의 저하와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Marcal, 2021; Shafer et al., 2017). 아버지의 우울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비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hafer et al., 2017),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와의 애착을 저해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weeney & MacBeth,

2016). 가정폭력과 폭력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왔다(Fagan & Wright, 2011).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메타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지닌 평균 효과 크기는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Evans et al., 2008; Margolin, 2005; Wilson et al., 2009). 하지만,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간의 효과 크기의 차이가 현저하고, 연구마다 가정폭력을 정의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등의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의 노출과 청소년의 폭력비행의 관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또래 요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여타 발달 단계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Blum et al., 2014; Knecht et al., 2010). 또래 집단에의 소속은 청소년에게 매우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폭력비행과 같은 위험 행동에 가담하기도 한다(Dahlberg & Potter, 2001). 비행 성향을 지닌 친구들과 교제하는 경우 청소년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증가한다(Bushman et al., 2016; Dahlberg & Potter, 2001).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청소년은 비행을 학습할 수 있으며, 또래 집단 내에서 비행 행동이 장려되고 비행 행동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Dahlberg & Potter, 2001). 한편,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의 폭력비행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습적인(conventional) 또래들로부터 거부된 청소년은 비행 성향을 지닌 또래들과 어울리게 될 수 있다(Dahlberg & Potter, 2001; Lansford et al., 2014). 결과적으로 이는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증가시킨다(Dahlberg & Potter, 2001; Lansford et al., 2014).

3. 청소년기의 폭력비행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생 시기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닌다(Blum et al., 2014; Moilanen et al., 2010).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환경적, 관계적, 신체적 측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일련의 변화들은 폭력비행 피해에 대한 취약성과 폭력비행 가해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Mrug & Windle, 2009).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학교급의 변화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들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또래 관계의 변화를 마주한다.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학업적 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Dahl, 2004; Moilanen et al., 2010).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2차 성징이 진행되어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다(Dahl, 2004).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근접한 시기에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변화의 정도를 더욱 크게 인식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소수연 외, 2014). 문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폭력비행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Mrug & Windle, 2009).

한편, 이 시기 청소년들은 폭력비행에 가담할 기회에도 더욱 쉽게 노출된다. 중학생이 된 청소년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교류하는 빈도와 시간이 감소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력은 약화되기 때문에(Blum et al., 2014; Simons et al., 2007)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높아진다(Lansford et al., 2014). 부모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학생 시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다(Lansford et al., 2014; Simons et al., 2007).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거나,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 폭력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Lansford et al., 2014; Mrug & Windle, 2009).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 청소년기 중 중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폭력비행에 초점을 두었다.

제 3 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소년의 폭력비행

해외 선행연구들은 ACEs가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폭력비행과 ACEs의 관계는 Duke 외(2010)의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ACEs 중 신체 학대, 성적 학대, 가정 내 폭력 목격, 가족 구성원의 약물 사용 문제는 또래 괴롭힘, 물리적 싸움, 데이트 폭력, 무기 소지와 같은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s 누적점수와 폭력비행 간의 관련성의 경우, 점수가 높아질수록 여자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은 38%에서 88%로, 남자 청소년은 35%에서 144%로 증가하였다(Duke et al., 2010). 또한, 4개 이상의 ACEs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ACEs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10배까지 증가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이 ACEs의 영향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Duke et al., 2010). 후속 연구들 또한 앞선 연구와 일관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경험한 ACEs 개수가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신체적 싸움 등의 폭력비행이 발생할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gan & Novak, 2018; Garrido et al., 2018; Hunt et al., 2017). 나아가, 일반 청소년이 아닌 폭력 범죄 전과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ACEs와 폭력비행의 관계는 유의하였다. Fox 외(2015)와 Wolff 외(2017)에 따르면, 폭력 범죄 전과를 가진 청소년 중 ACEs 점수가 더 높은 청소년은 초범 이후 더욱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ACEs 누적점수의 증가는 이들이 재체포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높은 ACEs 점수는 이전의 폭력 범죄와 후속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f et al., 2017). 전과를 가진 청소년들 중에서는 중범죄와 만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ACEs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onner et al., 2020).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ACEs, 청소년의 폭력비행, 그리고 ACEs와 청소년의 폭력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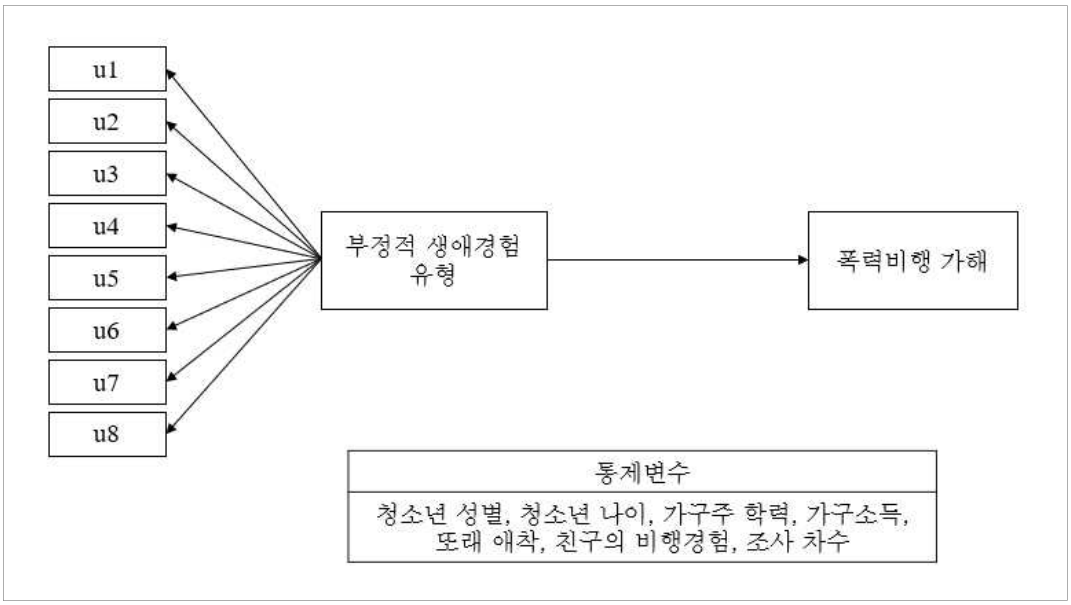
둔 국내 가구의 성인(만 19세~59세)의 78.9%가 최소 하나의 ACEs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류정희 외, 2017). 이는 ACEs 연구가 상당수 축적된 영국(47.1%, Bellis et al., 2014)과 미국(61.5%, Ports et al., 20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ACEs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ACEs에 대한 정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규명된 ACEs의 하위 경험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국내 선행연구들이 성인들의 과거 ACEs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나아가 해당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경 경험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폭력비행 가해 위험이 가장 큰 청소년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폭력비행의 발생을 개인에게 기인하는 대신,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 방임 등 가정과 관련된 일련의 부정적 경험들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견지를 제시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경험 유형에 따라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잠재 계층 분석을 통해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경험 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로, 앞서 분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독립 변수로, 폭력비행 가해 경험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또래 관련 요인을 통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개의 시점으로부터 수집된 상이한 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고자 조사 차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의 아동부가조사, 가구용 데이터, 가구원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은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경제 및 생활실태 변화를 조사하기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진행하는 패널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 수가 충분하다. 또한, 저소득층을 전체 표본의 약 50%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연구에도 적합하다. 해당 패널 조사는 국내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 이후, 2021년까지 총 1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원 표본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가구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차년도 표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7차년도부터 1,800개의 신규패널이 구축되었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조사표는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용 조사는 중고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매년 반복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구용 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경제활동 상태, 소득, 생활 여건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용 조사는 근로, 생활 실태,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매년 반복되는 해당 조사들과 달리 부가조사는 각 년도 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3년 주기로 아동, 장애인,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동부가조사자료는 표본가구 내의 아동을 조사한 것으로, 조

사 영역은 아동의 생각과 행동, 가족, 학교생활, 친구, 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부가조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1차~16차년도 조사 자료들 중 1차/4차/7차/10차/13/16차년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KoWePS)의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조사 영역에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규명된 ACEs의 하위 경험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최근에 소개된 ACEs 연구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목격이나 또래 괴롭힘 등의 부정적 사건들을 하위 영역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ACEs는 학대 경험과 가정 내 역경 경험으로 측정된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은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아동부가조사로 구성되어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험들을 조사한다.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는 '가구원의 투옥'을 제외한 가정 내 역경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부가조사에는 학대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 외에도 ACEs의 하위 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자료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가 있다. 하지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응답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료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 패널자료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tudy; KYPS),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서울아동패널조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패널 자료들은 학대 경험과 가정 내 역경에 해당하는 경험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ACEs에 포함된 하위 영역들을 폭넓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년) 아동부가조사의 응답자는 조사 당시 중학생에 해당하였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아동부가조사는 1차년도에 가구 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조

사한 것을 시작으로 4차년도에는 1차년도 부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7차년도에는 마모된 패널의 수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표본 1,800가구가 추가되어, 10차년도부터 신규 가구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어지는 13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서는 10차년도 부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중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604명의 청소년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391명이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두 시점의 자료를 결합하였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와 13차년도 조사 시점 사이에는 9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년도 조사 참여자와 13차년도 조사 참여자를 구분하는 코호트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하는 모든 변수에 응답한 797명(4차=514명, 13차=283명)의 청소년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제 2 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청소년의 폭력비행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아동부가조사의 '비행경험' 문항들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폭력비행에 부합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아동부가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비행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조사를 위해 서울아동패널(2005)의 '서울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에 포함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총 8개이나(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다른 사람 폭행 경험, 물건이나 돈을 뺏은 경험, 성인사이트를 본 경험, 가출 경험, 무단결석 경험, 폭력써클 가입경험, 패싸움 해본 경험), 본 연구에서는 폭력 비행을 측정한 '다른 사람 폭행 경험', '물건이나 돈을 뺏은 경험', '폭력써클 가입경험', '패싸움 해본 경험'의 네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1 = 그런 적 없다; 6 = 5번 이상). 다른 사람 폭행 경험(왜도: 3.58, 첨도: 13.81), 물건이나 돈을 뺏은 경험(왜도: 5.79, 첨도: 34.53), 폭력써클 가입 경험(왜도: 19.96, 첨도: 399.50), 패싸움해 본 경험(왜도: 7.11, 첨도: 51.55)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각각 3과 10을 초과하여 비정규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네 개의 문항들을 개별적인 종속변수로 사용하거나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는 대신 이분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속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축소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네 가지 경험이 모두 폭력비행 가해라는 상위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번의 가해 경험이라도 청소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박지수, 한윤선, 2018) 네 문항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1,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해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은 가구 조사, 가구원조사, 아동부가조사 자료의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잠재계층분석(LCA)으로 분류된 세 개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이 본 연구의 독립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더미 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하위 경험들은 학대(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가족 역기능(부모와의 분리,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가구원의 우울, 가정 내 폭력)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한 것이며, 부모와의 분리는 조사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여부를 나타낸다. CDC-Kaiser ACE study에서 측정한 ACEs의 하위 항목에는 부모의 수감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수감 경험이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CA를 통해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지만,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립 변수로 이분 변수를 투입하는 LCA와 달리, LPA는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독립 변수들이 모두 동일한 척도로 측정된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분석에 투입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만약 독립 변수들이 각기 다른 척도로 측정되었다면 척도를 균등하게 변환하는 것이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LCA는 이분 변수로 변환한 독립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각기 다른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ermunt & Magidson, 2002). 한편, 연속형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응답자에게 횟수나 정도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확한 횟수와 피해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이 불확실하여 왜곡된 응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경험 여부를 측정한다면 과거 회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조춘범, 이현, 2020).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부정적 생애경험의 하위 경험 중에는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이분 변수 사용의 장점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의 축소라는 한계점을 감수하고 LPA 대신 LCA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독립 변수를 경험 여부에 따라 '0 = 경험 없음'과 '1 = 경험 있음'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1) 학대

학대는 아동부가조사자료를 사용해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신체 학대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정서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3개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나를 꾸짖은 일', '부모님이 너만 없었으면 속이 편할 거라고 말한 일', '부모님이 모욕적인 말을 한 일' 이 포함된다. 성 학대는 성추행 피해 경험을 묻는 두 문항으로 측정하며, '지난 1년간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진 경험', '지난 1년간 타인이 옷을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 한 경험' 이 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5점 척도로 되어 있다(1 = 전혀 없었다; 5 = 일주일에 1~2번).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 있다', 없는 경우를 '0 = 없다'로 코딩하여 각각의 학대 경험을 측정하였다.

2) 방임

방임은 아동부가조사에 포함된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이유 없이 내가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내가 몰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한다', '불량오락실 출입사실을 알아도 모른 체하는 일'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 전혀 없었다' 부터 '5 = 일주일에 1~2번' 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 여부에 따라 '0 = 없다', '1 = 있다'로 코딩 변경하여 한 문항이라도 '1 = 있다'에 응답한 경우 방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3) 가정 내 역경

가정 내 역경은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역경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여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구원의 유무, 우울증을 겪는 가구원의 유무, 배우자 간 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했는지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역경 경험은 가구원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겪는 가구원은 부모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1) 부모와의 분리

부모와의 분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가구조사의 '가구형태' 문항과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① 부모와의 분리 경험의 경우, 아동부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를 해당 역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0 = 경험 없음', '1 = 경험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2)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은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① '가구형태'의 응답 범주는 단독(1인가구), 모자(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 부자(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 소년소녀가장(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함), 비해당(앞선 가구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로 되어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은 가구원조사 응답자가 가구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가구형태 문항을 통해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에 응답한 가구는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비해당에 응답한 가구 중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비롯해 조손 가정, 부모 중 한 사람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비해당 응답 가구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을 통해 가족 구성을 파악하였다.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AUDIT에 포함된 문항은 총 10개이고, 각 문항은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 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분류된 세 영역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주변 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등이 있다. 문항이 속한 세 영역별로 응답 범주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AUDIT 가이드에 따라 응답을 5점 척도(0점=전혀 없음; 4점=거의 매일)로 변경한 후 10개 문항의 총합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8점 이상인 경우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로 평가된다(Babor et al., 2001). 해당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12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내에 한 사람이라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지닌 경우를 해당 역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3) 가구원의 우울

가구원의 우울은 CESD-11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우울척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며, 총 11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식욕이 없음',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등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부터 '4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CESD-11에 따라 1~4점을 0~3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 없이 생활' 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응답의 총점에 20/11을 곱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Lewinsohn et al., 1997). 가구 내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해당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1과 0으로 코딩하였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76이다.

(4) 배우자 간 폭력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배우자 간 폭력을 목격한 여부는 가구원조사의 '부부관계' 항목에 포함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은 총 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배우자 간의 언어적 폭력, 폭력 위협, 직접적 폭력 행사 경험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문항의 예시에는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함', '신체적 폭력의 위협에 대한 경험',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함' 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 전혀 없음', '2 = 1~2번', '3 = 3~5번', '4 = 6번 이상', '0 = 비해당'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 참여자 중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들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은 모두 '0=비해당'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 전혀 없음'을 0으로 코딩 변경해 세 문항의 응답 총합이 0이 아닌 경우를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부정적 생애경험들을 제외하고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분석 모형에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가장 먼저,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 가구주 학력,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원자료에서 청소년의 성별은 '1 = 남', '2 = 여'로 되어 있어 더미 변수(0 = 여, 1 = 남)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나이의 경우, 원자료에는 나이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생년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계산해 변수를 생성하였다. 가구원 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의 학력은 '1 = 무학'부터 '6 = 대학원 졸'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명성을 위해 기존의 응답을 '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전문대졸', '4 = 대졸 이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는 저소득가구(= 0), 그렇지 않은 가구는 일반 가구(= 1)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관련된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아동부가조사에는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을 측정하는 조사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래 애착 문항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내 친구는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의 4개로 구성되었다. 친구의 비행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6개로 구성되었다. 6 문항에는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무단결석한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삥 뜯은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포함된다. 이들 중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역 채점 문항에 해당한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 = 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1~4점을 0~3점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친구의 비행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778과 0.773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차수를 구분하기 위한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0 = 2009년, 1 = 2017년) 분석에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연령과 또래 애착, 친구의 비행 경험을 제외한 모든 범주형 변수들은 더미 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정리

구분			변수 설명 및 측정 방법	변수 유형
종속변수	폭력비행 가해		(부가조사) 폭력비행 가해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더미
독립변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신체 학대	(부가조사) 신체 학대 피해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더미
		정서 학대	(부가조사) 정서 학대 피해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성 학대	(부가조사) 성 학대 피해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방임	(부가조사) 방임 피해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부모와의 분리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부모와의 분리 경험 여부 0 = 없음, 1 = 있음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가구원조사)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가구원의 유무 0 = 없음, 1 = 있음	
		가구원의 우울증	(가구원조사) 우울증을 앓는 가구원의 유무 0 = 없음, 1 = 있음	

		배우자 폭력	(가구원조사) 배우자 간 폭력 발생 여부 0 = 없음, 1 = 있음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연령	(부가조사) 조사 당시 연령 (4차: 2009년, 13차: 2017년)	연속
		청소년 성별	(부가조사) 0 = 여, 1 = 남	더미
		가구주 학력	(가구원조사) 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전문대졸, 4 = 대졸 이상	더미
		가구 소득	(가구조사) 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 60% 미만 여부 0 = 저소득, 1 = 일반	더미
		또래 애착	(부가조사) 청소년의 또래 애착 정도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거의 그렇지 않다, 2 = 그런 편이다, 3 = 항상 그렇다	연속
		친구의 비행 경험	(부가조사) 친구의 비행 경험 정도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거의 그렇지 않다, 2 = 그런 편이다, 3 = 항상 그렇다	연속
		조사 차수	0 = 4차, 1 = 13차	더미

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함으로써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여덟 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들과 폭력비행 가해 경험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잠재 계층을 분류해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적합도 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74)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tz, 1978)을 참고하고, 분류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Entropy 값을 확인하였다. 정보적합도지수인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것으로 파악한다(Geiser, 2012). Entropy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70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비교적 정확히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애리, 정익중, 2018; Nagin, 2005). 모형 간의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Lo et al., 2001)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 McLachlan & Peel, 2000)을 이용할 수 있다.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잠재계층이 k개로 분류된 모형보다 k-1개로 분류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Nylund et al., 2007). 잠재계층분석 과정에서는 조사 차수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셋째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비행 가해 위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또래 관계, 그리고 조사 시점을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폭력비행 가해 경험 유무를 측정한 이분형 변수이므로, 독립변수인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로지스

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는 Mplus 7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분석에는 Stata 14.0을 사용하였다.

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청소년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 797명 중 남자 청소년이 401명(50.31%), 여자 청소년이 396명(49.69%)으로 남자 청소년이 근소하게 많았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58세(SD=0.937)이며,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각각 12세와 17세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1학년은 255명(31.99%), 2학년이 272명(34.13%), 3학년이 270명(33.88%)을 차지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소득 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1명(16.44%), 고등학교 졸업이 356명(44.67%), 전문대 졸업이 97명(12.17%),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3명(26.7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60%인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정의하였다. 전체 가구 중 180 가구(22.58%)가 저소득가구이며 617 가구(77.42%)는 일반 가구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또래 애착의 평균은 9.427(SD=2.027)로 나타났다.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0과 12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의 또래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행 정도는 평균이 2.541(SD=1.96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범위)		N (%)	평균 (SD)	범위
성별	남	401 (50.31%)		
	여	396 (49.69%)		
연령 (세)			14.58 (0.937)	12-17
학년	1학년	255 (31.99%)		
	2학년	272 (34.13%)		
	3학년	270 (33.88%)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131 (16.44%)		
	고졸	356 (44.67%)		
	전문대졸	97 (12.17%)		
	대졸 이상	213 (26.73%)		
가구 소득	저소득	180 (22.58%)		
	일반	617 (77.42%)		
또래 애착			9.427 (2.027)	0-12
친구의 비행			2.541 (1.969)	0-16

다음으로 <표 3>에서 연구의 주요 변수인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들과 폭력비행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신체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16.19%(129명)로 집계되었으며, 신체 학대의 평균은 0.162(SD=0.396)로 나타났다. 정서 학대의 경우 청소년의 28.36%(226명)가 해당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0.284(SD=0.451)로 확인되었다. 성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88%(15명)이며 해당 경험의 평균은 0.019(SD=0.136)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8.28%(66명)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방임의 평균 점수는 0.083(SD=0.276)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내 역기능에 해당하는 부정적 생애경험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17.94%(143명)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역경 경험의 평균 점수는 0.179(SD=0.384)이다. 우울증을 겪는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은 8.41%(67명)이며, 해당 역경 경험의 평균은 0.084(SD=0.278)이다.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가구원과 생활하는 청소년은 46.80%(373명)로, 전체 조사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해당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원 알코올 의존의 평균은 0.468(SD=0.499)로 나타났다. 배우자 간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29.86%(238명)이며, 평균 점수는 0.299(SD=0.458)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생애경험의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역경 경험 양상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8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누적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8점까지이다. 하지만, 청소년이 보고한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6점의 범위에 분포해 7점과 8점을 보고한 청소년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의 평균은 1.577(SD=1.202)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80.68%(643명)는 최소 한 종류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의 최빈값은 1점으로 32.75%(261명)의 청소년이 한 종류의 역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7.60%(220명)로 나타나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폭력비행 가해는 전체 응답자 중 77명(9.66%)의 청소년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변수의 평균값은 0.097(SD=0.296)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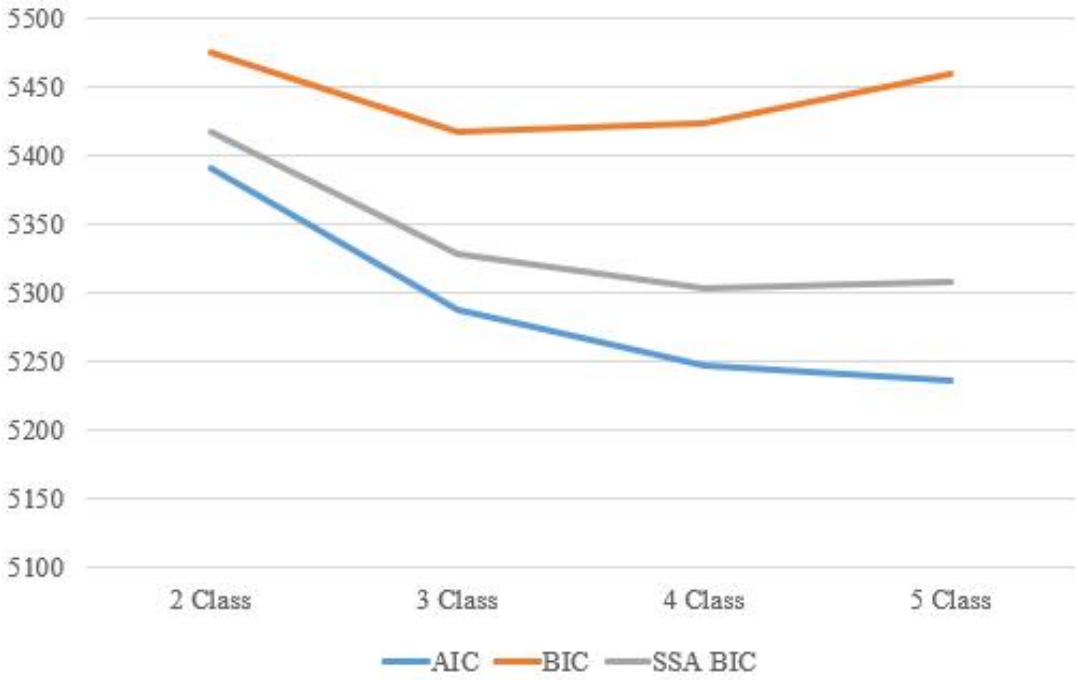
구분		N (%)	평균 (SD)	왜도	첨도
신체 학대		129 (16.19%)	0.162 (0.369)	1.836	4.371
정서 학대		226 (28.36%)	0.284 (0.451)	0.960	1.922
성 학대		15 (1.88%)	0.019 (0.136)	7.082	51.153
방임		66 (8.28%)	0.083 (0.276)	3.028	10.166
부모와의 분리		143 (17.94%)	0.179 (0.384)	1.671	3.792
우울		67 (8.41%)	0.084 (0.278)	2.998	9.987
알코올 의존		373 (46.80%)	0.468 (0.499)	0.128	1.016
배우자 폭력		238 (29.86%)	0.299 (0.458)	0.880	1.775
부정적 생애경험 누적점수	0	154 (19.32%)	1.577 (1.202)	0.699	3.403
	1	261 (32.75%)			
	2	220 (27.60%)			
	3	110 (13.80%)			
	4	38 (4.77%)			
	5	10 (1.25%)			
	6	4 (0.50%)			
폭력비행		77 (9.66%)	0.097 (0.296)	2.731	8.458

제 2 절 잠재계층분석 결과

1. 부정적 생애경험 잠재 계층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 계층이 몇 개로 분류되었을 때 최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모형은 AIC, BIC, Entropy 값과 LMR-LRT, BLRT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AIC와 BIC 값은 적을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잠재 계층이 정확히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k개의 잠재 계층을 분류한 모형의 LMR-LRT, BLRT 검증 결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모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k-1개로 분류한 모형을 선택하였다(Lo et al., 2001; Nylund et al., 2007).

<표 4>에는 잠재 계층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AIC 값은 잠재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C의 경우, 잠재 계층이 3개인 모형까지는 감소하였으나, 4개로 분류된 모형에서 증가하였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세 모형 중 잠재 계층이 5개인 모형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LRT 검증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LMR-LRT 검증 결과가 잠재 계층의 수가 4개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은 3개로 분류된 모형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적합도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잠재 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표 4> 잠재계층분석 적합도 분석 결과

Model	AIC	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5390.731	5474.986	0.697	186.270 (p<.001)	p<.001
3	5286.901	5417.965	0.759	122.004 (p<.01)	p<.001
4	5246.390	5424.262	0.754	59.619 (p=.117)	p<.001
5	5236.049	5460.730	0.787	29.893 (p=.22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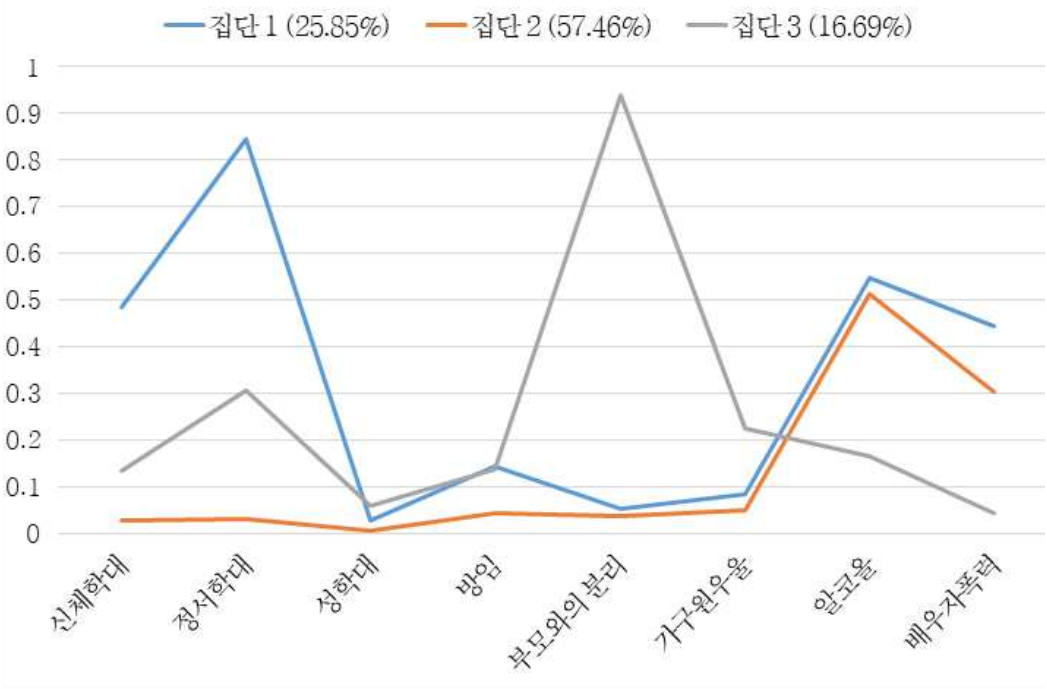
2. 잠재 계층별 특성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집단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3]은 최적으로 나타난 3 집단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내에서 개별적인 역경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분류된 유형과 역경 경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경험 비율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집단 1에는 전체 청소년의 25.85%(206명)가 속해 있다. 집단 1은 전체 청소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청소년이 포함된 집단이다. 해당 집단에서는 학대 경험 중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역기능의 하위 범주인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간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대 피해 경험과 역기능적 가정 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사건인 배우자 간 폭력,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집단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57.46%(458명)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세 집단 중 크기가 가장 크다. 해당 집단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으나,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간 폭력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집단 2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청소년의 16.69%(133명)가 속한 유형으로, 가장 작은 수의 청소년이 포함된 집단이다. 해당 집단은 부모와의 분리 경험 비율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학대 경험의 점수는 집단 1보다는 낮지만, 집단 2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집단 3은 '가족 해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응답 패턴

<표 5> 유형별 역경 경험 비율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전체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카이제곱 검정 $x^2(p)$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역기능적 가정환경	가족 해체	
	N = 797 (100%)	n = 206 (25.85%)	n = 458 (57.46%)	n = 133 (16.69%)	
신체 학대	16.19%	50.49%	1.75%	12.78%	250.17*** (p<0.001)
정서 학대	28.36%	90.78%	0%	29.32%	576.42*** (p<0.001)
성 학대	1.88%	2.43%	0.44%	6.02%	17.82*** (p<0.001)
방임	8.28%	13.11%	4.59%	13.53%	19.38*** (p<0.001)
부모와의 분리	17.94%	3.40%	1.09%	98.50%	704.10*** (p<0.001)
우울	8.41%	7.77%	5.02%	21.05%	34.55*** (p<0.001)
알코올 의존	46.80%	54.85%	51.97%	16.54%	59.18*** (p<0.001)
배우자 폭력	29.86%	44.17%	30.57%	5.26%	58.68*** (p<0.001)

*p<.05, **p<.01, ***p<.001

각 유형 내에서 특정 역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학대의 경우, 전체 청소년(16.19%)의 응답 비율에 비해 고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0.49%)의 응답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신체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고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90.78%)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족해체 유형(29.32%)의 응답 비율이 전체 청소년(28.36%)의 응답 비율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성학대는 측정된 역경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낮으며, 1.88%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 중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0.44%)만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험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족 해체 유형(6.02%)만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방임 또한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4.59%)의 응답만이 전체 청소년의 응답보다 낮았으며,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13.11%)과 가족 해체 유형(13.53%)의 피해경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비율은 가족 해체 유형(98.50%)에서 눈에 띄게 높았으며, 가구원의 우울 또한 해당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21.05%).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의 경우, 전체 청소년(46.80%)의 응답 비율과 비교하여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과(54.85%)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1.97%)에 속한 청소년에게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해체 유형(16.54%)의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가족 해체 유형(5.26%)에서 가장 낮았으며,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29.86%)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30.57%)의 경험 비율은 전체 청소년(29.86%)의 응답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분류된 유형과 각각의 부정적 생애경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모두 범주형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잠재계층은 여덟 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폭력비행 가해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또래 요인,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였으며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간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비교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보다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2.031배 높았다(OR=2.031, $p<.05$). 반면,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과 가족 해체 유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d-test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가족 해체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폭력비행 가해 경험과 통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폭력비행 위험이 1.7배 높았다(OR=1.700, $p<.05$). 청소년의 연령과 또래 애착이 폭력비행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R=1.325, $p<.001$).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학력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 간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차수의 경우, 13차년도 조사 참여자의 폭력비행 가해 위험이 4차년도 조사 참여자에 비해 56% 낮았다(OR=0.440, $p<.05$).

<표 6> 폭력비행 가해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OR	*B* (SE)	95% CI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2.031	0.709* (0.296)	1.14-3.63
가족 해체	1.140	0.131 (0.379)	0.54-2.39
청소년 성별 (준거: 여)	1.700	0.530* (0.265)	1.01-2.86
청소년 연령	0.751	-0.286 (0.148)	0.56-1.00
또래 애착	1.103	0.098 (0.069)	0.96-1.26
친구의 비행	1.325	0.281*** (0.049)	1.20-1.46
교육 수준 (준거: 고졸 미만)			
고졸	0.935	-0.067 (0.348)	0.47-1.85
전문대졸	0.787	-0.240 (0.498)	0.30-2.09
대졸 이상	0.448	-0.804 (0.457)	0.18-1.10
소득 수준 (준거: 저소득)	0.714	-0.336 (0.322)	0.38-1.34
조사 차수 (준거: 4차)	0.440	-0.820* (0.342)	0.23-0.86

*p<.05, **p<.01, ***p<.001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대한 접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처벌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폭력비행의 위험 요인으로써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주목해 가해 청소년이 역경 경험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응답자 개개인의 경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청소년의 경험 유형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 확률이 높은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80.68%가 최소 하나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으며, 특정 경험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참여자가 해당 역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한 개 이상의 ACE를 경험한 비율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애리, 2021; 김준범, 손수민, 2020), 이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역경 경험의 비율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응답 비율에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것과 달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전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ACEs 발생 시점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과소 보고되어 측정오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패널에는 전체 표본 중 절반에 가까운 표본이 저소득가구에서 표집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 나타난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각 연구에서 측정한 부정적 생애경험들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만으로 실제 역경 경험의 발생 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도 ACEs의 발생이 드물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험 음주를 하는 알코올에 의존적인 가구원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46.8%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평균인 14.1%(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알코올 의존도 자가 진단표(한국형 AUDIT)는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지만, 임상적 수준의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UDIT에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 '과음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과 같이 음주 행위에 관용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드물지 않게 경험되는 상황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지니고 위험 음주를 하는 가구원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험 음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조병희 외, 2018).

둘째,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3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유형들은 서로 구분되는 경험 양상을 나타낸다. 유형별 경험 특징에 따라 각 유형을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가족 해체' 유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는 전체 청소년의 25.85%가 속해 있다. 해당 유형을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명명한 이유는 청소년의 학대 피해 경험과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문제, 배우자 폭력에 대한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서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50.49%와 90.78%로 세 집단 중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구원과 거주하는 비율은 54.85%로, 이 또한 전체 집단의 응답(46.80%)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집단에서는 배우자 폭력(44.17%) 경험 비율도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종합해보면,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중복 발생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문제 또한 동반되는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학대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중복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김기현 외, 2018; 최진영, 김기현, 2020; Hamby et al., 2010; Herrenkohl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배우자 폭력과 동반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당 유형의 청소년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와의 분리(3.40%)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유형의 청소년들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경험하지 않으나,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가정 내에 팽배한 폭력 경험으로 인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이 속해 있다(57.46%). 해당 유형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간 폭력에 대한 응답이 높지만,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방임은 앞서 제시한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간 폭력이 공존하는 양상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Foran & O'Leary, 2008). 구체적으로 해당 유형에서 알코올 의존성을 가진 가구원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51.97%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해당 역경 경험이 있으며, 배우자 간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 또한 전체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30.57%). 이외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5% 내외이었으며, 정서 학대의 응답률은 0%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대 및 방임 또는 가족 내 역기능으로 분류되는 ACEs 하위 경험 중, 양육자의 문제 행동만이 특징적으로 높은 유형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분석 결과이다(Merians et al., 2019; Shin et al., 2018). 종합해보면, 해당 집단 내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보다 가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역경을 마주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가족 해체' 유형은 참여자의 16.69%가 속한 가장 작은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청소년 중 양부모와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8.50%로, 이는 유형 전체에 가까운 수치이다. '가족 해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한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한 부모와 조부모, 한 부모와 친척,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청소년에게 가해진 정서 학대(29.32%), 성 학대(6.02%), 방임(13.53%)은 타 유형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유형은 가구원의 우울증(21.05%)에 대한 응답 비율도 전체 집단(8.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해당 수치는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7.77%),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02%)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구원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 학대는 전체 조사 참여자의 1.88%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역경 경험 중 응답률이 가장 낮았으나, 해당 유형에서 성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0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집단보다 3배가량 높은 비율로 해당 집단의 경험 특성이 드러난다. 종합해보면, 가족 해체 유형은 여타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준거 집단을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p<.05$).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오즈비는 2.031로, 이는 해당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폭력비행 가능성이 역기능적 양육자 유형과 비교하여 약 103% 높음을 의미한다.

두 유형 모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당 폭력이 청소년에게 직접 가해진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각 유형에서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학습이론(Akers et al., 1995)과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hi, 1990)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목격한 청소년은 이를 모방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Akers et al., 1995). 부정적 생애경험 중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또한, 배우자 간의 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만을 고려한다면 두 종류의 역경경험 모두 청소년의 비행 위험을 높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배우자 간의 폭력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학대는 청소년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이지만, 배우자 간 폭력은 상대 배우자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점에서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hi, 1990)을 바탕으로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학대와 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self-control)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학대를 겪은 청소년은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통제력 또한 적절히 발달하지 못한 결과로써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배우자 간 폭력이 청소년이 목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경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학습을 비롯해 통제력 발달을 저해하는 사건으로써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행이론 외에 누적된 위험 모델(cumulative risk model)을 통해서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청소년이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보다 많은 종류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청소년들에게 누적된 위험

(cumulative risk)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부정적 생애경험이 폭력비행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유형에서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누적된 위험 모델에 따르면 복수의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 요인들은 서로가 지닌 영향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개별 요인들이 지닌 영향력의 단순 합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ppleyard et al, 2005). 또한, 적은 수의 역경 경험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다수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는 폭력비행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Oldfield et al.,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각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Wald-test 결과 가족 해체 유형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간 폭력비행 위험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유형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적 생애경험 응답 비율이 전체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두 유형은 학대 경험의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두 집단의 폭력비행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앞서 제시한 자기통제이론과 누적된 위험 가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로서 자기 통제력 발달이 저해되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두 유형 모두 중첩된 부정적 생애경험의 피해자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이 부정적 사건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심화된 결과로써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 해체 유형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세 유형 중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반면, 가족 해체 유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한 양상에는 분명한 차

이가 있으며 공통된 특성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이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유형의 폭력비행이 위험이 유사한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성인기 발달 결과에 한정된 국내 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였다. ACEs 개념은 학대(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가정 내 역경(부모와의 분리, 가구원의 우울증,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배우자 간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의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박애리, 2021). 또한, 누적된 위험 가설에서 제시하는 부정적 사건들의 영향력이 심화된 양상을 포착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장점을 인식하여, 국외에서는 성인기의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성취, 범죄를 비롯해(Duke et al., 2010; Ports et al., 2021; Waite & Ryan, 2019) ACEs와 아동·청소년기 발달 결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정적 생애경험을 다룬 연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의의 범위는 성인기 발달 결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련의 부정적 결과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 생애경험들이 성인기 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경험들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McEwen & Gregerson, 2019), 조기 개입을 위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 시기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역경 경험들과 청소년기 발달 간의 관계를 일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LCA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중첩성이라는 부정적 경험의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누적점수로 ACEs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누적점수와 ACE 점수와 특정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ACEs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나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수와 부정적 결과 간의 관계 외에 다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ACEs 점수만으로는 어떠한 개별 경험들이 중복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역경 경험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경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형 간 비교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가령 전체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덟 가지 하위 경험 중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역경 경험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으로 46.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주에 관대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정적 생애경험의 발생이 드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형별 응답을 살펴보면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54.85%,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51.97%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달리 가족 해체 유형의 경험 비율은 16.5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가족 해체 유형에서는 가구원의 우울에 대한 응답률이 21.05%로 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해체 유형의 사례에서도 앞서 언급한 이론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은 타 유형과 비교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 경험 비율은 낮지만,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원의 우울증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경험 특성을 종합해보면, 해당 유형에서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가구원으로부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대가 적절히 제지되지 못하거나, 보호자로의 역할을 맡은 가구원이 우울증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 별 특성은 누적점수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하지만, 이는 훗날 개입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화를 통해 청소년의 역경 경험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의 경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폭력비행의 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신체(50.49%) 및 정서 학대(90.78%),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54.85%), 배우자 간 폭력(44.17%)을 목격한 경험의 비율이 높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해당 유형에서 배우자 폭력, 알코올 의존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과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폭력 피해 경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배우자 간 폭력은 청소년의 폭력비행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부정적 사건이다(Fagan & Wright, 2011). 앞서 언급한 두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모두 배우자 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학대 피해 응답률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청소년 본인이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지 혹은 폭력을 목격하기만 했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의 역경을 경험했을지라도 특정 경험의 여부에 따라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폭력비행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맥락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2.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방임, 가정 내 역경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부처 간 협동을 통해 해당 요인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배우자 간 폭력이 학대 또는 알코올 의존과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기 다른 주무 부처가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역경 경험에 대해 대응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알코올 의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대응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 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부처 간 분절적인 정책 담당이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정수, 정익중, 2017). 또한, 각 대응체계의 개입 관점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김기현 외, 2018).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김기현 외(2018)와 정혜숙(2011)에 따르면 두 사건은 담당 주무 부처가 달라, 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정폭력은 여성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치유와 자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폭력이 중복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알코올 의존에 대한 개입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개입을 비롯해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으로 해당 ACEs를 경험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체계의 일차적 목표는 병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의존자의 단주와 치료이다. 즉, 알코올 의존자가 속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중재는 서비스 제공의 핵심 목표가 아니므로, 해당 역경에 대한 개입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행 서비스 지원체계를 고려한다면, ACEs의 중복 발생 양상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난 2021년 9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역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여성가족부, 2021)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가족갈등 등 위기 발생요인 해소',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강화'라는 네 가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네 가지 과제 중 폭력비행과 관련된 사안은 두 번째 추진과제인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개선안에서는 청소년의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1)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 3) 멘토링, 법률교육, 문화, 체육프로그램 등 자원 연계를 통한 학업 및 교육 지원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은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시설운영과 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한 개입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비행 가능성이 큰 유형의 특징은 신체 및 정서 학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배우자 간 폭력을 중복경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폭력비행 가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가정 내 직접적/간접적 폭력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알코올 의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안녕이 여러 역경 경험들로 인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일지라도 이들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 체계로써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Bronfenbrenner, 1992).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체계가 강화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가정 차원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환경 체계인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는 훗날 부정적 생애경험을 고려한 개입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근거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폭력비행 위험이 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파악해 해당 집단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ACEs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ACEs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 등을 고려해 개입하는 'ACE-informed practice'가 주목을 받고 있다(박애리, 정익중, 2018; Hughes et al., 2017). ACEs-informed practice는 스크리닝과 사정 단계에서 ACEs 누적점수를 측정하며(Goddard, 2021), 4점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ACEs 점수를 근거로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점수를 가진 고위험군 클라이언트일지라도 개인마다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 개별 경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ACEs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riggs et al., 2021). 따라서, 개입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경험 특성이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폭력비행 가해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이 어떠한 양상으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파악하였다. 이는 훗날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개입 방안을 고안해내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와 13차년도의 자료를 결합하여 두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년도 패널은 추가 표집을 통해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자료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집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해당 분석 결과는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의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ACEs와 폭력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측정 과정에서 부정적 생애경험에 포함하지 못한 역경 경험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ACEs 연구들은 Felliti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경 경험들을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연구자의 판단과 연구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역경 경험을 포함하기도 한다. ACEs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경험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구원의 약물 의존, 가구원의 정신질환,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가구원의 수감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구원의 수감 여부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의 특성상 불가피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역경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원의 수감 여부가 ACEs 항목에 포함된다면 연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잠재계층분석에서는 기존에 분류된 집단과 다른 양상으로 ACEs 경험 유형이 분류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수감은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Aaron & Dallaire, 2010; Murray et al., 2012) 해당 경험을 가진 청소년 집단의 비행 위험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연구

들은 기존 ACEs 외에도 가구원의 자살시도나 인종차별과 같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들을 포함하기도 한다(Bernard et al., 2021; Björkenstam et al., 2017; Soares et al., 2016).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피해 등을 ACEs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나, 분류된 유형이 폭력비행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생애경험은 부모와의 애착 결여, 정신병리, 충동성 조절, 정서조절과 같은 심리적 매개요인을 통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uke et al., 2010; Fox et al., 2015). 부정적 생애경험이 폭력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비행 이론들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hi, 1990)에 근거한다면 역경 경험들이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훗날 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사회학습이론(Akers et al., 1995)에 근거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한 결과로써 청소년의 폭력비행이 발생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의 역경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폭력비행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경로 검증은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의 검증을 통해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학생 시기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이 진행되어, 청소년기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행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김지경 외, 2015). 이러한 양상은 비행 행동에도 적용되는데, 기광도(2011)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 집단에 따라 학대와 방임 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생에 해당

하는 청소년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시기 별로 경험 유형을 분류하고, 경험 유형과 폭력비행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관계부처합동. (2021).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국가정신건강통계포털. (2020, 5월 7). 정신건강통계. 보건복지부.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bbs/bbsDetail.do?bbsId=BBSSTATS&nttId=106

국가통계포털. (2021, 5월 14). 소년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대검찰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85

기광도. (2011).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0(4), 93-114.

기광도. (2012).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2), 61-86.

김기현, 김용회, 김경희. (2018).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연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 *사회복지연구*, 49(4), 221-249.

김준범, 손수민. (2020). 아동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41(2), 27-39.

김준범, 장대연, 최장원, 서정열. (2018). 청소년의 중비행에 관한 연구: 촉발과 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5, 27-51.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황지태, 박성훈, 최수형. (201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2015). *2ℓ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 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9월 8).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905

류정희, 이주연, 정익중, 송아영, 이미진. (2017).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상식. (2013).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211-241.

박애리. (2021). 대학생이 인식한 아동기 생애 부정적 경험의 유형화. *미래사회복지연구*, 12, 229-255.

박애리, 정익중. (201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잠재적 유형화: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부적응과 유형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6), 85-99.

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한윤선. (2017).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또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아동학회지*, 38(2), 165-176.

박지수, 한윤선. (2018)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종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27.

보건복지부. (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손예진, 김기현, 김재원. (2018). 아동기 역경 경험이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4), 145-172.

오정수, 정익중. (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이계성. (2012).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13(2), 85-90.

이승현, 박성훈. (201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장현, 우룡, 조혜경. (2004).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연, 류정희. (2021).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잠재유형과 자녀학대

및 방임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25, 107-130.
이하나, 정익중. (202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건강 간의 관계: 성별 차이의 탐색. *아동학회지*, 42(3), 343-357.
임미령, 김지훈, 김미희, 이현, 정애경. (2015). 경기지역 중학생 비행행동 잠재집단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421-443.
정혜숙. (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조병희, 손애리, 김민혜, 양준용, 손슬기. (2018).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조춘범, 이현. (2020). 잠재계층분석 (LCA)을 이용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자 유형과 특성. *청소년문화포럼*, 61, 125-148.
최진영, 김기현. (2020). 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과 아동의 비행궤적의 관계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7(4), 249-28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9월 22). 청소년통계.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319&siteId=null
허경미. (2018). 학교폭력의 무관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3(2), 223-254.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Aaron, L., & Dallaire, D. H. (2010). Parental incarceration and multiple risk experiences: Effects on family dynamics and children's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2), 1471-1484.

Anderson, S., Donlan, A. E., McDermott, E. R., & Zaff, J. F. (2015). Ecology matters: Neighborhood differences in the protective role of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5(6), 536-549.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500.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Akers, R. L., & Jennings, W. G. (2019). The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In Krohn, M. D., Lizotte, A. J., & Hall, G. P. (Eds.),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pp. 113-129). New York, NY: Springer.

Akers, R. L., Krohn, M. D., Lanza-Kaduce, L., & Radosevich, M. (1995).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In McCord, J., & Laub., J. H. (Eds.), *Contemporary masters in criminology* (pp. 187-214). New York, NY: Springer.

Appleyard, K., Egeland, B., van Dulmen, M. H., & Alan Sroufe, L. (2005). When more is not better: The role of cumulative risk in child behavior outcom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235-245.

Arseneault, L., Walsh, E., Trzesniewski, K., Newcombe, R., Caspi, A., & Moffitt, T. E. (2006). Bullying victimization uniquely contributes to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18(1), 130-138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WHO.

Baglivio, M. T., Epps, N., Swartz, K., Huq, M. S., Sheer, A., & Hardt, N. S. (2014). The preval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in the lives of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Juvenile Justice*, 3(2), 1-17.

Baglivio, M. T., & Epps, N. (2016). The interrelatednes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high-risk juvenile offende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3), 179-198.

Baglivio, M. T., Wolff, K. T., Epps, N., & Nelson, R. (2017). Predicting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context in youth trauma among delinquent youth. *Crime & Delinquency*, 63(2), 166-188.

Barboza, G. E. (2018). Latent classes and cumulative impa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 Maltreatment*, 23(2), 111-125.

Belfield, C. R., Levin, H. M., & Rosen, R. (2012). The economic value of opportunity youth.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8.

Bellis, M. A., Lowey, H., Leckenby, N., Hughes, K., & Harrison, D. (201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trospective study to determine their impact on adult health behaviours and health outcomes in a UK population. *Journal of Public Health*, 36(1), 81-91.

Bernard, D. L., Calhoun, C. D., Banks, D. E., Halliday, C. A., Hughes-Halbert, C., & Danielson, C. K. (2021). Making the "C-ACE" for a culturally-informe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framework to understand the pervasive mental health impact of racism on Black youth.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14(2), 233-247.

Björkenstam, Charlotte., Kyriaki, Kosidou., & Emma, Bjorkenstam.

(2017). Childhood adversity and risk of suicide: cohort study of 548 721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Sweden. *The British Medical Journal,* 357(8102), 1-7. http://dx.doi.org/10.1136/bmj.j1334

Blum, R. W., Astone, N. M., Decker, M. R., & Mouli, V. C. (201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arly adolescence: A platform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6(3), 321-331.

Bonner, T., DeLisi, M., Jones-Johnson, G., Caudill, J. W., & Trulson, C. (2020). Chaotic hom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rious delinquency: Differential effects by race and ethnicity. *Justice Quarterly*, 37(4), 697-714.

Briggs, E. C., Amaya-Jackson, L., Putnam, K. T., & Putnam, F. W. (2021). Al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re not equal: The contribution of synergy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cores. *American Psychologist*, 76(2), 243.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 187 - 249). U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Bushman, B. J., Newman, K., Calvert, S. L., Downey, G., Dredze, M., Gottfredson, M., Jablonski, N. G., Masten, A. S., Morrill, C., Neill, D. B., Romer, D., & Webster, D. W. (2016). Youth violence: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merican Psychologist*, 71(1), 17 - 39.

Carr, C. P., Martins, C. M. S., Stingel, A. M., Lemgruber, V. B., & Juruena, M. F. (2013). The role of early life stress in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childhood trauma subtyp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1(12), 1007-1020.

Chan, H. C., & Chui, W. H. (2017). The influence of low self-control on violent and nonviolent delinquencies: A study of male adolescents from two Chinese societie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8(5), 599-619.

Chapple, C. L., Tyler, K. A., & Bersani, B. E. (2005). Child neglect and adolescent violence: Examining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peer rejection. *Violence and Victims*, 20(1), 39-53.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Cluver, L., Orkin, M., Boyes, M. E., & Sherr, L. (2015).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al behavior,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South Africa: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1), 52-59.

Cronholm, P. F., Forke, C. M., Wade, R., Bair-Merritt, M. H., Davis, M., Harkins-Schwarz, M., ... & Fein, J. A.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Expanding the concept of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9(3), 354-361.

Dahl, R. E. (2004).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 period of vulnerabilities and opportunities. Keynote addres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21(1), 1-22.

Dahlberg, L. L., & Potter, L. B. (2001). Youth violence: Developmental pathways and preven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1), 3-14.

David-Ferdon, C., Simon, T. R., & Knuth, A. (2014). *Preventing youth violence: Opportunities for action*.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avid-Ferdon, C., Vivolo-Kantor, A. M., Dahlberg, L. L., Marshall, K.

J., Rainford, N., & Hall, J. E. (2016). *A comprehensive technical packag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and associated risk behaviors*.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Lisi, M., & Vaughn, M. G. (2014). Foundation for a temperament-based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and criminal justice system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1), 10-25.

Dierkhising, C. B., Ko, S. J., Woods-Jaeger, B., Briggs, E. C., Lee, R., & Pynoos, R. S. (2013). Trauma histories among justice-involved youth: Findings from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4(1), 20274.

Dong, M., Anda, R. F., Felitti, V. J.,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J., Loo, C. M., & Giles, W. H. (2004). The interrelatedness of multiple forms of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8(7), 771-784.

Dube, S. R. (2018). Continuing conversations abou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screen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85, 180-184.

Dube, S. R., Felitti, V. J., Dong, M., Chapman, D. P., Giles, W. H., & Anda, R. F. (2003).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and the risk of illicit drug use: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Pediatrics*, 111(3), 564-572.

Duke, N. N., Pettingell, S. L., McMorris, B. J., & Borowsky, I. W. (2010). Adolescent violence perpetration: Associations with multiple type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ediatrics*,

125(4), e778-e786.

McEwen, C. A., & Gregerson, S. F. (2019).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t 20 year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6(6), 790-794.

Eren, O., & Mocan, N. (2021). Juvenile punishment, high school graduation, and adult crime: Evidence from idiosyncratic judge harsh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3(1), 34-47.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

Evans, S. E., Davies, C., & DiLillo, D. (2008).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of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2), 131-140.

Fagan, A. A., & Novak, A.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in a high-risk sample: A comparison of white and black youth.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6(4), 395-417.

Fagan, A. A., & Wright, E. M.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adolescent violence and drug use. *Child Abuse & Neglect*, 35(7), 543-550.

Farrell, A. D., & Sullivan, T. N. (2004). Impact of witnessing violence on growth curves for problem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in urban and rural setting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05-525.

Farrington, D. P. (1993a).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Crime and Justice*, 17, 381-458.

Farrington, D. P. (2004b). Conduct disorder,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627-664).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 Hamby, S. (2015). A revised inventory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 Abuse & Neglect*, 48, 13-21.

Flaherty, E. G., Thompson, R., Dubowitz, H., Harvey, E. M., English, D. J., Proctor, L. J., & Runyan, D. K. (2013).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ild health in early adolescence. *JAMA Pediatrics*, 167(7), 622-629.

Flight, J. I., & Forth, A. E. (2007). Instrumentally violent youths: The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empathy, and attach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6), 739-751.

Foran, H. M., & O'Leary, K. D. (2008). Alcoh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222-1234.

Ford, K., Hughes, K., Hardcastle, K., Di Lemma, L. C., Davies, A. R., Edwards, S., & Bellis, M. A. (2019). The evidence base for routine enquiry in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 scoping review. *Child Abuse & Neglect*, 91, 131-146

Fox, B. H., Perez, N., Cass, E., Baglivio, M. T., & Epps, N. (2015). Trauma changes everyth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46, 163-173.

Garrido, E. F., Weiler, L. M., & Taussig, H. N.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ealth-risk behaviors in vulnerabl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5), 661-680.

Geiser, C. (2012). *Data analysis with Mplus*. New York, NY: Guilford Press.

Goddard, A.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rauma-Informed Car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35(2), 145-155.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regory, A., & Cornell, D. (2009). "Tolerating" adolescent needs: Moving beyond zero tolerance policies in high school. *Theory into Practice*, 48(2), 106-113.

Haegerich, T. M., & Dahlberg, L. L. (2011). Violence as a public health risk. *American 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5(5), 392-406.

Hamby, S., Finkelhor, D., Turner, H., & Ormrod, R. (2010). The overlap of witnessing partner violence with child maltreatment and other victimization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youth. *Child Abuse & Neglect*, 34(10), 734-741.

Herrenkohl, T. I., So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Moylan, C. A. (2008). Intersection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9(2), 84-99.

Herrenkohl, T. I., Maguin, E., Hill, K. G.,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2000).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youth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3), 176-186.

Hughes, K., Bellis, M. A., Hardcastle, K. A., Sethi, D., Butchart, A.,

Mikton, C., ... & Dunne, M. P. (2017). The effect of multipl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heal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2(8), e356-e366.

Hughes, M., & Tucker, W. (2018). Poverty as a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North Carolina Medical Journal*, 79(2), 124-126.

Hunt, T. K., Slack, K. S., & Berger, L. M.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behavioral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67, 391-402.

Jackson, D. B., Testa, A., & Vaughn, M. G.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chool readiness among preschool-aged children. *The Journal of Pediatrics*, 230, 191-197. e195.

Jones, T. M., Nurius, P., Song, C., & Fleming, C. M. (2018). Modeling life course pathways from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 adult ment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80, 32-40.

Karatekin, C., & Hill, M. (2019). Expanding the original definition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12(3), 289-306.

Kelly, J. B. (201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and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separation and divorce: Social science applications. In K. Kuehnle & L. Drozd (Eds.), *Parenting plan evaluations: Applied research for the family court* (pp. 49 - 8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Kelly-Irving, M., Mabile, L., Grosclaude, P., Lang, T., & Delpierre, C. (2013). The embodimen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ancer development: Potential biological mechanisms and pathways across the life 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1), 3-11.

Knecht, A., Snijders, T. A., Baerveldt, C., Steglich, C. E., & Raub, W. (2010). Friendship and delinquency: Selection and influence

processes in early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9(3), 494-514.

Kruskal, W. H., & Wallis, W. A. (1952). Use of ranks in one-criterion variance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7(260), 583-621.

Kurlychek, M. C., & Johnson, B. D. (2019). Cumulative disadvantage in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2, 291-319.

Lansford, J. E., Dodge, K. A., Fontaine, R. G., Bates, J. E., & Pettit, G. S. (2014). Peer rejection, affiliation with deviant peers, delinquency, and risky sexu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0), 1742-1751.

Lansford, J. E., Miller-Johnson, S., Berlin, L. J.,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2007).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ment*, 12(3), 233-245.

Lee, E., Larkin, H., & Esaki, N. (2017).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s a new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category: Promising results and future considerations. *Families in Society*, 98(1), 69-78.

Lee, J. S., & Taxman, F. S. (2020).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the complex needs of youth on prob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5, 105087.

Lew, D., & Xian, H. (2019). Identifying distinct latent classe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US childre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hood internalizing disorder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0(4), 668-680.

Lewinsohn, P. M., Seeley, J. R., Roberts, R. E., & Allen, N. B. (1997).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depress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2(2), 277.

Lipsey, M. W., & Derzon, J. H. (1998).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 synthesis of longitudinal research. In R. Loeber & Farrington (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pp. 86-105). CA: Sage Publications.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Loeber, R., Menting, B., Lynam, D. R., Moffitt, T. E., Stouthamer-Loeber, M., Stallings, R., Farrington, D. P., & Pardini, D. (2012). Findings from the Pittsburgh youth study: Cognitive impulsiv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the age - crime curv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11), 1136-1149.

Mack, K. Y., Leiber, M. J., Featherstone, R. A., & Monserud, M. A. (2007). Reassessing the family-delinquency association: Do family type, family processes, and economic factor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1), 51-67.

Mair, C., Cunradi, C. B., & Todd, M. (2012).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esting psychosocial mediational pathways among couples. *Annals of Epidemiology*, 22(12), 832-839.

Marcal, K. E. (2021). Pathways to adolesc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 examination of maternal depression and harsh parenting. *Child Abuse & Neglect*, 113, 104917.

Margolin, G. (2005).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Explor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divers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 72-81.

Maschi, T., Baer, J., Morrissey, M. B., & Moreno, C. (2013). The aftermath of childhood trauma on late lif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tology*, 19(1), 49-64.

Masyn, K. E.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d Finite Mixture Modeling. In Todd D. Litt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pp. 551-61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Maughan, D., & Moore, S. C. (2010). Dimensions of child neglect: an exploration of parental neglect and its relationship with delinquency. *Child Welfare*, 89(4).

McGuigan, W. M., Luchette, J. A., & Atterholt, R. (2018). Physical neglect in childhood as a predictor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Child Abuse & Neglect*, 79, 395-400.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NY: Wiley.

McLaughlin, K. A., Sheridan, M. A., & Nelson, C. A. (2013).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brain development: Neurobiological mechanisms linking the social environment to psychiatric disorders. In Koenen, K., Rudenstine, S., Susser, E., & Galea, S (Eds.), *A Life Course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pp. 249-25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Mercy, J. A., Butchart, A., Farrington, D., & Cerda, M. (2002). Youth violence. In E. G. Krug, L. L. Dahlberg, J. A. Mercy, A. B. Zwi, & R. Lozano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pp. 23-56).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Merians, A. N., Baker, M. R., Frazier, P., & Lust, K. (2019). Outcomes related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college students: Compar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cumulative risk.

Child Abuse & Neglect, 87, 51-64.

Merrick, M. T., Ports, K. A., Ford, D. C., Afifi, T. O., Gershoff, E. T., & Grogan-Kaylor, A. (2017). Unpacking the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adult ment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69, 10-19.

Metzler, M., Merrick, M. T., Klevens, J., Ports, K. A., & Ford, D. C.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life opportunities: Shifting the narra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2, 141-149.

Moffitt, T. E. (1993). The neuropsychology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1-2), 135-151.

Moilanen, K. L., Shaw, D. S., & Maxwell, K. L. (2010). Developmental cascade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cademic competence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635-653.

Mok, P. L., Astrup, A., Carr, M. J., Antonsen, S., Webb, R. T., & Pedersen, C. B. (2018). Experience of child - parent separation and later risk of violent criminal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5(2), 178-186.

Morales, J. R., & Guerra, N. G. (2006). Effects of multiple context and cumulative stress on urban children'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7(4), 907-923.

Moreland, A., & Ressler, K. J. (2021).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rauma and the criminal juvenile justice system: Using a trauma-informed lens for meaningful and sustained chang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9(3), 216-224.

Morrow, A. S., & Villodas, M. T. (2018).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 high school

dropout among high-risk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8(2), 327-341.

Moylan, C. A., Herrenkohl, T. I., So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Russo, M. J. (2010).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53-63.

Mrug, S., & Windle, M. (2009). Bidirectional influ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Externalizing behaviors and school connected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5), 611-623.

Mrug, S., Loosier, P. S., & Windle, M. (2008). Violence exposure across multiple contexts: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n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70-84.

Murray, J., Loeber, R., & Pardini, D. (201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theft, marijuana use, depression,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Criminology*, 50(1), 255-302.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Oldfield, J., Humphrey, N., & Hebron, J. (2015). Cumulative risk effects for the development of behaviour difficulti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1, 66-75.

Paul, J. J., & Cillessen, A. H. (2003). Dynamics of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Results from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25-43.

Perez, N. M., Jennings, W. G., & Baglivio, M. T. (2018). A path to serious, violent, chronic delinquency: The harmful aftermath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rime & Delinquency*, 64(1), 3-25.

Ports, K. A., Ford, D. C., Merrick, M. T., & Guinn, A. S. (2020). ACEs: Definitions, measurement, and prevalence. In Gordon J.G. Asmundson, Tracie O. Afifi (Ed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p. 17-34). Cambridge, MA: Academic Press.

Ports, K. A., Tang, S., Treves-Kagan, S., & Rostad, W. (2021). Breaking the cycl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Economic posi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ACE scores among Black and Hispanic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7, 106067.

Price, C., & Kunz, J. (2003). Rethinking the paradigm of juvenile delinquency as related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9(1-2), 109-133.

Quinlan, E. B., Barker, E. D., Luo, Q., Banaschewski, T., Bokde, A. L., Bromberg, U., & Schumann, G. (2020). Peer victimiz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Molecular Psychiatry*, 25(11), 3066-3076.

Reidy, D. E., Niolon, P. H., Estefan, L. F., Kearns, M. C., D'Inverno, A. S., Marker, C. D., & Merrick, M. T. (2021). Measuremen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t matter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61(6), 821-830.

Ryan, J. P., Williams, A. B., & Courtney, M. E. (2013). Adolescent neglect,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isk of recidiv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3), 454-465.

Sameroff, A. J. (2000). Dialectical process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Arnold J. Sameroff, Michael Lewis, Suzanne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3-40). Boston, MA: Springer.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uals of Statistics*, 6, 461 - 464.

Shafer, K., Fielding, B., & Wendt, D. (201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paternal and maternal depression on adolescent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41(2), 85-96.

Shin, S. H., McDonald, S. E., & Conley, D. (2018). Patter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ubstance use among young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Addictive Behaviors*, 78, 187-192.

Shonkoff, J. P., Garner, A. S., Siegel, B. S., Dobbins, M. I., Earls, M. F., McGuinn, L., &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Adoption, and Dependent Care.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1), e232-e246.

Shorey, R. C., Fite, P. J., Elkins, S. R., Frissell, K. C., Tortolero, S. R., Stuart, G. L., & Temple, J. R.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problematic parental substance use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9th and 10th grader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4(6), 381-393.

Simons, R. L., Simons, L. G., CHEN, Y. F., Brody, G. H., & LIN, K. H. (2007).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45(3), 481-517.

Slack, K. S., Font, S. A., & Jones, J. (2017). The complex interplay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ace, and income. *Health & Social Work*, 42(1), e24-e31.

Smith, C. A., Ireland, T. O., Thornberry, T. P., & Elwyn, L. (2008). Childhood maltreatment and antisocial behavior: Comparison of self-reported and substantiate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2), 173-186.

Soares, A. L. G., Howe, L. D., Matijasevich, A., Wehrmeister, F. C., Menezes, A. M., & Gonçalves, H.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in adolescents of a Brazilian birth cohort. *Child Abuse & Neglect*, 51, 21-30.

Staff, J., & Kreager, D. A. (2008). Too cool for school? Violence, peer status and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87(1), 445-471.

Su, J., Kuo, S. I. C., Aliev, F., Guy, M. C., Derlan, C. L., Edenberg, H. J., Nurnberger Jr, J. I., Kramer, J. R., Bucholz, K. K., & Salvatore, J. E. (2018). Influence of parental alcohol dependence symptoms and parenting on adolescent risky drinking and conduct problem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42(9), 1783-1794.

Sweeney, S., & MacBeth, A. (2016).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5, 44-59.

Turner, D., Wolf, A. J., Barra, S., Müller, M., Hertz, P. G., Huss, M., Tüscher, O & Retz, W.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young offender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 1195 - 1207.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Hagenaars, & A.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de, R., Shea, J. A., Rubin, D., & Wood, J. (201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f low-income urban youth. *Pediatrics*, 134(1), e13-e20.

Waite, R., & Ryan, R. A. (2019).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hat students and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know.* England, UK: Routledge.

Walker, S. C., Bishop, A. S., Nurius, P. S., & Logan-Greene, P. (2016). The heterogeneity of treatment needs for justice-involved girls: A typology using latent class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3(3), 323-342.

Williams, S., Anderson, J., McGee, R., & Silva, P. A. (1990).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413-419.

Wilson, H. W., Berent, E., Donenberg, G. R., Emerson, E. M., Rodriguez, E. M., & Sandesara, A. (2013). Trauma history and PTSD symptoms in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Victims & Offenders*, 8(4), 465-477.

Wilson, H. W., Stover, C. S., & Berkowitz, S. J. (2009). Research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olence exposure and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 meta 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7), 769-779.

Wiss, D. A., & Brewerton, T. D. (2020).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obesity: A systematic review of plausible mechanisms and meta-analysis of cross-sectional studies. *Physiology & Behavior*, 223, 112964.

Wolfe, D. A. (1999). *Child abuse: Implications for chil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CA: Sage Publications.

Wolff, K. T., Baglivio, M. T., & Piquero, A. R.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juvenile offenders in community-based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11), 1210-1242.

Wolff, K. T., Cuevas, C., Intravia, J., Baglivio, M. T., & Epps, N. (2018). The effects of neighborhood context on exposure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among adolescents involved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Latent classes and contextual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11), 2279-230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June 08). Youth viol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youth-violence

Zarse, E. M., Neff, M. R., Yoder, R., Hulvershorn, L., Chambers, J. E., & Chambers, R. A. (2019).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questionnaire: Two decades of research on childhood trauma as a primary cause of adult mental illness, addiction, and medical diseases. *Cogent Medicine*, 6(1), 1581447.

Abstract

Latent Classe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olescent Violent Delinquency

Kim, Seonye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have detrimental effects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may lead to maladaptive outcomes. Violent delinquency, a type of maladaptive behavioral outcome, may seriously harm adolescent's well-being.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estern samples, much less work has investigated the typology of ACEs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examined how those types are related to violent risk-taking.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study aimed to identify distinct subtypes of

AC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latent groups and violent delinquency. Using waves four (N=514) and thirteen (N=283) of the nationally-representativ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study assessed four types of maltreatment (physical/emotional/sexual abuse, and neglect) and four types of household dysfunction (family history of alcohol dependence, parental depress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arental sepa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large proportion of adolescents (80.86%)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at least one type of adversity. The rate of exposure to household members' alcohol dependence reached nearly half of the sample (46.80%). Those results revealed that adversities are not rare among South Koren adolescents and cultural tolerance for alcohol consumption is relatively high in South Korea. Therefore, it may be understood that adolescents' adverse experiences represent the features of Korean society being acceptable to alcohol consumption and its low awareness of problematic drinking.

Second, three distinct groups were identified and labeled as follows: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25.85%),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57.46%), and family dissolution (16.69%). The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was found to be exposed to both child maltreatment and family dysfunction. Specifically, adolescents in this group reported high rates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victimizat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alcohol dependence of a household member.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were members of the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Overall, this group showed a low rate of adversity experiences, but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alcohol dependence of family member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he family dissolution group is distinct in that almost all adolescents are not living with at least one of their biological parents. In addition, this group had relatively high rates of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and household members' depression.

Third,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were at a higher risk of engaging in violent delinquency compared to the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Amongst the overall high rate of adverse experiences, the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stands out concerning child maltreatment victimization.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groups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engaging in violent delinquency may be explain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self-control theory, and cumulative risk hypothesis.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s in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may model parents' inappropriate behavior. Also,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traumatic experience may disrupt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s self-control based on self-control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mulative risk hypothesis, this group is at higher risk of violent delinquency due to accumulated adverse experiences.

Fourth, the high abuse and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and family dissolution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engaging in violent delinquency. Although the patterns of adversities in each group were disparate, the number of adversity experienced is high in both groups. Therefore, this result may be interpreted based on the cumulative risk hypothesis.

Fifth, the possibility of violent delinquency between the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and family dissolution group

was insignificant. The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group can b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low proportions adolescents with adverse experiences, yet the range of adversities is wide. Future studies may provide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result.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Study results are unable to explain the mechanisms between membership in the latent class and violence delinquency; not all dimensions of the original ACEs were used in the LCA due to limited availability of data.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current study extended the existing ACEs literature in South Korea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the typologies of adverse experiences in Korean adolescents and therefore provided a comprehensive view of understanding adolescents' past experiences. Also, by comparing the possibility of violent delinquency between groups, this study identified which group is at higher risk. Those findings may suggest the need for developing trauma-focused inter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strategies. In addition, greater integ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different adversities should be emphasized for carrying out services.

Keywords : Adolescents, Violent delinquenc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Latent class analysis
Student Number : 2020-26567